Entertainment p/17

놀라워라! 이채영 브로디

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Sports p/21

장하나 1타차 대역전 우승

'김정은 고모' 김경희는 살았다

NEWS p/02

백수보다 더 우울한 비정규직

NEWS p/03

WORLD p/04

메트로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국내 600대 기업이 내다본 2014년 국내 경제여건 및 경영환경

"경기 회복되지만 하반기에나"

대기업 대부분 "내년 경제여건 나빠지진 않을 것" 성장률 전망은 정부·한은보다 낮은 3%미만 예상

한국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기관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전망해 다소 긍정적인 반면, 국내 많은 기업이 3%대 미만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단 그래픽 참조>

특히 국내 기업들은 내년 경제성장의 변수로 내수 회복 미흡과 통상임금·정년연장 등 노동 관련 이슈 등 국내 요인을 꼽았다.

15일 재계 및 경제관련 연구소 등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서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각종 경제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 후반으로 보고 있다.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가장 긍정적인 4.0%대 성장률을 보였고, 한국은행(3.8%), 한국개발연구원(KDI 3.7%), 국제통화기금(IMF 3.7%),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 등 국내외 기관의 전망도 3%대 후반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보수적으로 본 한국경제연구원(KERI)도 3.4%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의 경우 내년 글로벌 경기회복과 소비 및 투자 증대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중 수출보다 내수가 확대돼 경제전망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내년 3.6% 성장하는 것에 힘입어 우리 경제도 3.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은행의 전망과 달리 내수보다 해외수출면에 주목했다. 한국 경제의 경우 수출증가 등으로 최근 수년간 2%대 성장세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교역 증대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이 같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도 내년부터 회복세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전경련이 국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 366개사의 82.8%가 내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올해에 비해 소폭 개선(38.0%) 되거나 불변 또는 비슷(44.8%)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응답 기업의 87.9%가 우리나라의 경기회복 시점을 2014년 하반기(39.5%) 또는 2015년 이후(48.4%)로 내다봤고, 58.1%가 내년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측하는 등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내년 투자·고용 올해와 비슷

이에 따라 기업의 내년 투자·고용 계획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투자의 경우 '확대(25.6%)' 응답이 축소 보다 조금 높았고, 고용은 '확대(19.3%)·축소(18.4%)'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또 기업이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과제로 응답 기업의 72.9%가 '경제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다음으로 환율 등 리스크관리(15.1%), 유동성 지원(4%)가 뒤를 이었고 경제민주화 구현(3.2%), 복지확대(3.2%)는 후순위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역시 소폭 늘릴 것이라 답했다"며 "점진적인 회복의 기운이 본격적인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살리기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보준기자 kuaa@met metroseoul.co.kr

철도노조 파업 8일째인 15일 오전 서울역 매표창구 옆 전광판에 일부 열차의 운행 중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아래 작은 사진은 최연혜(왼쪽) 코레일 사장, 김명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전철 오늘부터 낮시간 감축운행

18일엔 서울지하철노조도 파업 돌입 교통대란 우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16일부터 수도권 전철의 낮 시간대 운행이 줄어든다. KTX는 17일부터 감축에 들어간다.

코레일은 대체 근무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안전 운행에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 전동열차·무궁화호를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중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 횟수는 2109회에서 1931회로 8.4% 감축된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과 주말은 평상시와 같이 운행된다.

KTX 운행 횟수는 주중 하루 200회에서 176회로 12% 줄어든다. 주말에도 232회에서 208회로 감축된다.

일반 열차의 경우 새마을호와 통근용 열차는 기존대로 운행하되 무궁화호는 16일부터 10회 감축키로 했다. 반면 운행이 전면 중단됐던 누리로 열차는 12회 증편 운행한다.

또 물류 대란을 고려해 화물열차는 16일부터 제천~오봉 2편, 제천~광운대 4편 등 총 6개 열차가 증편된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가 18일 연대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이번 주 중반 이후 전국적인 교통대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파업이 시작된 9일부터 14일까지 코레일이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고장만 이미 13차례나 발생해 이용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집계된 고장 건수에는 10분 미만으로 열차가 정지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운행되는 등의 가벼운 고장은 빠져 있어 실제 수도권 지하철에서 발생한 고장은 수십 건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미기자 psm0820@

군 핵심 지대공미사일 천마 자격없는 영세업체서 정비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정비 일부를 무자격 영세업체가 정비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방위청과 천마의 탐지추적장치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한 뒤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직접 정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군수업체 A사 대표 김모(49)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천마 구동유닛 9대와 디스플레이 유닛 6대 등의 정비 계약을 따내자마자 다른 군수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줘 계약금 3억80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5개월간 허위 정비 원가자료를 제출해 5억4000만원을 챙겼다. 실제 유지보수 원가는 3500만원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방위청 서기관 출신인 노모(60)씨를 회사 전무로 영입해 군과 방위청을 상대로 로비한 사실을 적발하고 노씨도 함께 입건했다. /윤다혜기자

'벼락치기' 국회 '휴일 변남'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이군현(왼쪽) 소위원장과 최재천 야당 간사가 귓속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뉴스

새 방공식별구역 발효…첫날 '피스아이' 띄워 감시

● 정부가 8일 선포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15일 발효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새로운 KADIZ 발효 직후 공군의 항공통제기(피스아이)를 동원해 일부 확대된 KADIZ 구역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해상 초계기(P3-C)를 동원해 매주 4~5차례 KADIZ 초계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수사 결과 이번주 안에 발표

●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을 수사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금주 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군 수사기관은 기소, 불기소 대상자를 구분해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요원 상당수가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택시요금 5000원 이하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 추진

● 안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5000원 이하의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6000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61억4700만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79억억원을 편성해 해마다 수수료 대납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송년잔치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3년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송년잔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벨리댄스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 여성 참여자 모집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2014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5357명을 16~20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시 381명·자치구 4976명으로 내년 2월3일~6월30일 5개월(하루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동안 서울시청 각 부서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일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기존 3개월에 한번, 분기별로 연 4회 모집하던 방식을 바꿔 상·하반기 2번 진행, 각 5개월씩 근무하도록 해 업무숙련도를 높이고,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사업유형별로 1일 3만2000~3만6000원(식비 5000원 별도 지급)씩 자동 지급돼 월 최대 94만9800원을 받을 수 있다.

공기업 직원도 마구 채용

3년간 평균 증가율 공무원의 8.4배…한수원은 무려 2232명이나 늘려

방만경영과 과도한 부채로 논란이 된 공공기관의 3년간 임직원 수 평균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 수 증가율보다 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29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규모는 25만3877명으로 2009년 말 23만4143명에 비해 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60만9573명에서 61만5487명으로 1.0%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0%를 넘었고, 공공기관의 올해 예산은 575조원으로 정부 예산(349조원)의 1.7배 규모였다.

또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1.7배, 현대차의 1.2배로 기업과 비교해서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과다 중점관리대상 12개 공공기관은 평균을 훌쩍 넘는 임직원 수 증가율을 보였다.

2009년 이후 임직원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한국장학재단(96.4%)이 있고,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37.4%), 한국수력원자력(31.6%),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31.1%), 한국광물자원공사(19.6%), 한국가스공사(19.0%), 한전KPS(14.9%) 등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수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한국수력원자력(2232명), 한국철도공사(611명), 한전KPS(604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533명), LH(509명), 한국가스공사(483명), 한국도로공사(264명),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254명), 한국석유공사(194명), 한국수자원공사(137명) 순이었다. /이연춘기자 ejlee@metroseoul.co.kr

'김정은 고모' 김경희는 멀쩡

장성택 숙청 후에도 건재
북 장의위원 세번째 포함

장성택 처형의 후폭풍으로 북한에서 대규모 숙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는 건재함을 알렸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경희의 이름을 포함시켰다.

이날 발표된 장의위원 명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에 이어 최룡해 군 총정치국이 세 번째로 거명됐고 리영길 군 총참모장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뒤를 이었다.

또 장성택 최측근 인사 가운데 망명설까지 제기된 로두철 부총리와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리영수 당 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도 대거 포함됐다. 장성택 인맥으로 분류돼 본국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의 활동도 15일 북한 언론의 보도에 나왔다.

철책 철통경계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1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우리군 병사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이는 장성택 처형의 후폭풍에서 이들이 벗어났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북한의 숙청 정국이 일단 고비를 넘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성택 숙청이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라고 보면 쿠데타식으로 한꺼번에 숙청 정국으로 몰고갔을 때 체제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며 "구심점이 될 핵심 인물을 없애고 나머지가 흩어진 상황에서 차근차근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범준기자

"비정규직 취업하면 백수 때보다 더 우울"

백수 청년보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된 청년이 우울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라재림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원이 공개한 2012~201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담은 '에코세대의 취업변화와 우울'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연속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15.28%, 2년 연속 직업이 없던 사람 중에서는 18.76%,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사람 중에서는 19.06%가 우울감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을 하지 않다가 올해 직업을 가진 그룹에서 우울감을 나타낸 비율이 23.41%로 나타났다.

이들 신규 취업자 그룹 중 비정규직 취업자들이 정규직 취업자들보다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4.31배나 높았다. 직업이 없는 데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업에 대한 걱정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느끼는 불안감이 훨씬 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소위 '에코 세대'로 불리는 만 21~34세 응답자 1397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윤다혜기자 yun@

학원 다니면 '출입금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⑴ 신림동 '우리자리' 공부방

우리 주변에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웃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희망 도우미'들이 많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들을 찾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주입식 아닌 '진짜 공부' 자부심·자신감 대단해 졸업 후 후원자 되기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우리자리' 공부방은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지역 공부방 중 한 곳이다. 1996년부터 관악구청으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가난 생명 공동체' 교육과정을 자체 개발해 청소년들 각자의 소질과 개성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 2010년부터 중·고생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방침을 바꿨다.

◆공부방 다녔던 아이들 후원자로

15년째 학생들에게 든든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이원의씨는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어떻게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이 곳 아이들은 학원 대신 공부방을 다닌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공부방에 올 수 없다. 이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를 지켜주기 위함이다. 공부방은 관악구가 내놓은 건물에 개인의 후원과 재능을 부모는 신뢰를 청소년은 성장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보였다. 이씨는 교육은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와 소통으로 지속되고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돕는 조력자다.

"공부방에는 지역주민이 수시로 드나들어요. 문화, 기초학습 수업을 기반으로 초기에는 지기의 배움을 쌓고, 연자가 쌓아진 지역사회를 위해 각자의 지식이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죠. 교육 과정은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모아 구성했죠."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공부방을 이끌어가는 데 한 몫을 한다. 그는 "학생 때 공부방에 다녔던 아이들이 나중에 후원자가 되거나 재능기부 멘티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미소지었다.

이씨는 학생들에게 "모든 배움은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생기니 배운 것이 당장 필요없다고 후회하지도 말고, 지금 당장 관심 없다고 새로운 배움을 꺼리지 말라"고 강조한다. 그의 꿈은 분식집이 있는 공부방이다.

"학교 끝난 후 갈 곳이 없을 때, 무작정 집을 나왔을 때, 거리를 떠돌다 배가 고플 때 마음대로 가는 분식집. 돈은 있는 사람이 내거나 없는 만큼 내도 되는 분식집은 차리고 싶어요." /정윤아기자 jyn@metroseoul.co.kr

'우리자리 공부방'의 이원의 교사와 학생들은 최근 각자 집에서 갖고 온 재료로 김장을 담갔다. 직접 담근 김치는 내년 1월 4일 열리는 공부방 후원 행사 '하루'에서 일반인으로 쓰인다. 수익금의 10%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키스방·유리방 등 125곳 덜미

서울 성매매·게임장 단속 변종업소 가장 많이 적발

서울지방경찰청이 기업형 성매매 업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특별 단속해 업소 231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등 653명을 검거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 불법 성매매 업소와 게임장 특별 단속한 결과, 기업형 성매매 업소 162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유형별로 키스방, 유리방, 귀청소방 등 최근 새로 생겨난 변종 업소가 125곳(77.2%)을 차지했고, 룸살롱 등 유흥·단란주점 16곳(9.9%), 안마시술소 8곳(5%), 기타 13곳 등이었다.

게임장은 허가·등록업소 29곳, 무허가·무등록업소 40곳 등 총 69곳이 단속됐다.

경찰은 내년 1월29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대한민국 문화유산·관광지 우표책 나왔다

오늘부터 온오프라인 판매

한국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담은 우표책이 나온다.

서울지방우정청은 15일 "'대한민국 우표책'을 서울지역 우체국을 통해 1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표책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대한민국을 한눈에 정리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한권으로 기획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강의 기적, 문화유산, 관광지를 담은 우표와 엽서, 사진,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안내글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 우표책'은 내년 11월 30일까지 서울중앙우체국, 광화문우체국 등 서울지역 251개 우체국에서 현장판매하며, 우체국장터(http://escrow.epost.go.kr)을 통한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다. /윤다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2조원대 가짜 영수증 일당 잡았다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료상'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15일 "9월부터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한 뒤 자료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2조1293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적발했다"며 "5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짜 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액을 탈루한 이들에게도 1차적으로 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최근 자료상이 대규모화·점조직화되면서 국가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다 조직폭력배 등과 결탁해 보복폭행 등 2차 범행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해 합동단속에 나섰다.

부산에서 적발된 22명은 35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범죄수익은 벤츠 등 고급 승용차 구입이나 유흥주점 출입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산홍기자

거울엔 역시 눈썰매 15일 오후 서울 개봉동의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눈썰매를 타며 겨울 정취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시신이 그의 고향 쿠누로 옮겨지고 있다. 만델라의 시신이 든 관은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군용기로 이스턴케이프주 음타타로 공수된 뒤 다시 육로를 통해 쿠누로 이송됐다. 이날 장례식에는 영국의 찰스 왕세자,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등이 참석해 만델라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작은 사진은 만델라의 영정 사진 앞에 밝혀진 촛불. /AFP 연합뉴스

'옥토끼' 달 위를 깡총깡총!

中 창어3호에 실린 탐사차도 달 표면 활동 시작

중국의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3호가 14일(현지시간) 달 착륙에 성공한 데 이어 위성에 탑재된 달 탐사차량의 분리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15일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창어 3호에 탑재된 달 탐사차인 '옥토끼(玉兔·중국명 위투)호'가 착륙선에서 분리돼 달 표면에 안착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창어 3호의 달 착륙 직후 기기 및 환경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확인된 뒤 옥토끼가 태양(전지판) 날개와 안테나를 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최초의 달 탐사차 '옥토끼'는 진공상태나 방사선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다. 무게는 140㎏ 정도다. 시속 200m로 움직일 수 있고 20㎝ 장애물도 훌쩍 뛰어 넘는다. 영하 180도~영상 150도 기온에서도 작동 가능하다. 달탐사 차량의 모든 부품은 중국산으로 알려졌다.

창어의 달 착륙 성공으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옛 소련)에 이어 세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됐다. /조선미기자

오바마 '새빨간 거짓말'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약속 발언 '올해의 거짓말' 선정

"종전 건강보험이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유지' 발언이 2013년 최고의 거짓말로 꼽혔다.

14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웹사이트인 폴리티팩트(PolitiFact.com)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를 추진하면서 여러 번 반복한 이 약속을 '올해의 거짓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일 오바마케어 시행이 본격화하자 건강보험 업체들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최소 보장 기준에 맞도록 보험료를 더 내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계약을 해지했다. 이 때문에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새 기준에 맞추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보험 상품을 1년간 더 유지해도 벌금을 물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폴리티팩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며 "약 400만 명의 미국인이 종전 보험의 계약은 취소된다는 통보를 듣고 그의 약속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선미기자 seenmi@metroseoul.co.kr

샌디훅 참사 어느새 1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발생 1주년을 맞아 촛불 26개를 켜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AFP 연합뉴스

美 "바바리맨" 징역 6년

미국에서 바바리맨에게 징역 6년이란 중징계를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 때문에 바바리맨 시고기 공허함 않는 한국 법조계에서 참조할 만한 일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로크월 카운티 법원은 노출과 외설 혐의로 기소된 매듀 시먼스(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시먼스는 지난 2월 월마트 매장에서 12세 여학생 앞에서 갑자기 성기를 노출시켰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월마트 측도 신고를 받고 재빨리 매장 출입문을 걸어 잠갔고 시먼스의 체포를 도왔다. /이국명기자 kmlee@

대학교 모집일정 및 문의

모집일정 2013년 12월 1일 (일) ~2014년 1월 3일 (금)
모집문의 02)2290-0012 (go.hanyangcyber.ac.kr)

대학교 학사과정 모집학과

공학계열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자동차IT융합공학과, 해킹보안학과
인문/교육계열	교육공학과, 영어학과, 이동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일본어학과, 청소년학과
사회계열	부동산학부, 사회복지학부, 보건행정학과, 법학과
경제/경영계열	경영학부, 경제금융학과, 광고미디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시니어비즈니스학과
디자인계열	디자인학부

한양사이버대학교 2014년 상반기 교육전담교수 초빙

1. 초빙 분야 및 인원 (총 4명)

초빙학과	전공분야 및 자격	초빙 인원(명)
컴퓨터공학과	자동차IT융합 전공 (무인지원자동차 강의 가능한 자)	1
미술치료학과	예술치료 전공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미술치료 자격증 소지자 우대)	1
상담심리학과	건강심리학 상담심리학	2
합계		4

2. 초빙 일정

서류 접수 2013년 12월 13일 (금) ~ 2014년 1월 2일 (목) 오후 5시

3. 문의

- 한양사이버대학교 교무처 교무학사팀
  02)2290-0011 0013 0015 / 2090006@hycu.ac.kr
- 홈페이지 www.hycu.ac.kr

겨울용 타이어 어디 있나요?

공급부족에 운전자 애간장

눈이 많이 내리며 겨울용 타이어를 찾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려 구하기가 힘들어 운전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겨울용 타이어를 찾는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입차 판매 증가와도 연관이 깊다.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후륜구동차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타이어 규격이 다양해 이런 수요를 업계가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겨울용 타이어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일부 규격의 경우 물량이 부족한 편"이라며 "겨울용 타이어는 생산 후 바로 팔지 못하면 1년을 묵혀야 하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산 중에는 한국타이어의 아이셉트 에보와 아이셉트 이지, 금호타이어의 윈터크래프트와 아이젠이 많이 팔리는 편이고 넥센타이어는 수요가 비교적 적다. 수입 타이어로는 브리지스톤과 미쉐린, 컨티넨탈 등의 제품이 있다.

/정의석기자

"채권단은 책임 다했나"

Issue&View
법정관리 문턱 선 쌍용건설 (하)
/기선욱기자 ssr0820@metroseoul.co.kr

워크아웃 전후 임원 그대로 지급보증 거절 해외수주 '0'

쌍용건설이 또다시 생사의 기로에 놓이자 채권단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쌍용건설의 경영은 채권단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이 사실상 맡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 데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은 채권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쌍용건설의 자금관리단은 우리은행에서 파견된 자금관리단장을 비롯해 산업·신한·국민은행에서 나온 자금관리부국장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부실 이끈 경영진 그대로 중용

워크아웃 개시 전인 지난해 12월 쌍용건설 임원은 김석준 회장을 포함해 총 21명이다. 그런데 21명의 이름은 워크아웃 개시 후인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 임원 현황에 그대로 등장한다.

쌍용건설 부실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워크아웃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것이다. 특히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던 김영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다.

김 감사는 부산 사하구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지 불과 3달 만에 쌍용건설 상임감사로 내정된 바 있다. 일본 다이와리조트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일본통임을 인정받아 선임됐지만 김 감사가 온 뒤로 쌍용건설이 일본에서 수주한 공사는 1건도 없다.

◆해외 공사 따오라면서 지급 보증은 거절?

채권단이 아이러니한 태도를 보인 것은 경영진 교체 문제만이 아니다. 애초 워크아웃에 부정적이었던 채권단이 아예 합의된 데는 쌍용건설의 해외 건축 능력 때문이었다.

실제 쌍용건설이 2010년 6월 완공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보면 이 회사의 경쟁력을 알 수 있다.

21세기 건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듣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일본·프랑스·홍콩 등 전 세계 유수의 건설사가 달려들었지만 발주처의 요구를 못 맞춰 포기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는 쌍용건설의 수주 실적은 요즘 들어 전무하다. 채권단에서 지급 보증을 거부해서다. 싱가포르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수주가 확실시됐던 톰슨라인 지하철 공사나 창이공항 신축 공사 모두 발주처에서 100% 지급 보증을 요구했지만 채권단이 30% 이상은 불가하다고 해 최종 계약에 실패했다.

이색 채소 한자리에 12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여성 모델들이 국내산 이색 채소를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파프리카 1개 1650원, 브로콜리 1송이 1450원, 콜라비 1개 1700원, 래디시(100g) 1730원, 콜리플라워 1통 3980원, 알파트 1통 2150원이다. /연합뉴스

'차량 무인단속 적발' 국세청 사칭 스미싱 주의

국세청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대표 안내전화인 397-1200번을 발신인으로 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최근 대량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자는 '차량이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됐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k or road kr' 인터넷주소가 병기돼 있다.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 창이 뜬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 예상액 또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확인을 요구하는 수법의 스미싱 문자 주의보도 내린 상태다.

/황용희기자

최대 실적 SK하이닉스 43명 '승진잔치'

SK 141명 임원 인사단행

SK가 12일 예년과 비슷한 규모인 141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원칙에 따라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는 43명이 대거 승진했다.

SK는 우선 '위기 속 안정과 성장 추진'이라는 경영 방침하에, 따로 또 같이 3.0 체제의 안전판을 위해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6개 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유임됐다.

또 최고경영자(CEO)급 인사에서는 박장석 SKC 사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정기봉 SKC 화학사업부문장이 사장으로 선임돼 박장석 부회장과 함께 신소재 개발과 사업화를 이끌게 됐다.

SK케미칼 사장이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며, 에너지 화학사업 전반을 두루 경험한 김철 SK케미칼 수지사업본부장이 후임 SK케미칼 사장으로 선임됐다.

SK가스 사장에는 김정근 SK가스 가스사업부문장이, SK증권 사장에는 김신 전 현대증권 사장이 선임됐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의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 사장은 유임됐고, SK루브리컨츠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기화 SK에너지 마케팅본부장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내년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전체 승진자 규모는 신규 선임 100명을 포함한 총 141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원칙에 따라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에서 43명이 대거 승진했다.

/정대균기자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1962.81	(-5.02)
코스닥	494.38	(-1.28)
금리(CD금리)	2.66	(-0.05)
환율	1053.00	(+2.50)

갤럭시3 키즈로 성탄카드 뚝딱!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3 키즈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카드 클래스를 지난 14일 코엑스몰 갤럭시존에서 개최했다. 유아 자녀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갤럭시 탭3 키즈 교육을 진행한 후 아이들이 갤럭시 탭3 키즈를 사용하여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다. /삼성전자 제공

'금리의 반격'전 가계빚 털어라

내년 금리상승… 집집마다 재테크 첫단추는 '부채 줄이기' 돼야

금융가 사람들

■하나금융 정희수 연구원

내년에는 금리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면서 가계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 문제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희수(사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가계금융이 이런 특성을 나타내면서 일반 가계는 부채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생활비와 노후자금 마련에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원은 "내년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서도 세수확보에 목 말라있는 상태이므로 소득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지 않는 가계의 체감적인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가계 지갑에서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더디게 늘어나면서 생활비 마련을 고민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정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없이 부채 상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마련 등의 대출 비중이 37.9%에 달하며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예상 은퇴 연령이 66.1세인 데 반해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61.3세로 5년 정도 빠른 것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61.9%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주택 구매를 위해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과거 추세와 달리, 당장 쓸 돈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대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 연구원은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 제2금융권 대출부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현재 1000조원을 넘어간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이 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쓴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정 연구원은 "은행권에서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7%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논뱅크 은행을 포함한 다중채무를 짊어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34%로 높아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1%를 넘어가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삼성카드 사들인 삼성생명 속내

지분율 30% 넘어 '자회사'로 '금융중심 중간지주설' 무게

삼성그룹 지분의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삼성그룹이 현행 법을 제제 아래서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하는 중간지주 도입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그룹 타 계열사로부터 삼성카드 지분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5.81%(739만1968주)를 취득했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의 기존 주요주주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계열사 보유 지분을 모두 흡수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지분 확보를 위해 주당 3만5700원씩 모두 2641억원을 투입했고 보유 지분은 28.60%에서 34.41%로 늘어났다.

상장회사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현행법 아래서 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두고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중간 금융지주를 만드는 지배구조 변화에 착수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김현정기자 hjkim@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층
TEL. (02)721-9800 FAX. (02)730-1551

광고전체인	남궁표
사장 편집인	김광혁
편집국장	도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91

2009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0

로또복권 제578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0	11	15	25	35	41	1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4,321,961,000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40,015,234
3등	5개 숫자 일치	1,384,359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숫자 일치	5,000

'양도세 감면' 막차 탈까

대구·위례 등 이번주 청약단지 7곳 '4·1대책 마지막 수혜'

12월의 반이 지나면서 양도세 감면 마지막 수혜 단지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4.1부동산대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계약할 경우 입주 후 5년간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보통 입주자모집공고 후 당첨자 계약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주 청약접수를 받는 단지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마지막 사업장이 될 전망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내 계약 일정을 확정한 신규 분양단지는 7곳, 3473가구다. 특히 올해 분양 단지마다 성공 행진을 달린 대구와 위례신도시 3개 사업장이 포함돼 있으며, 29~31일 3일간 계약을 받는다.

대구에서는 테크노폴리스 A15블록에서 호반건설이 '대구테크노폴리스 호반베르디움'을 공급한다. 전체 770가구, 전용면적 64~84㎡로 구성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649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됐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한신공영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 대실역 '한신휴플러스'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전체 933가구 규모다. 대구지하철 2호선 대실역과 성서IC가 가깝다. 분양가는 3.3㎡당 791만원이다.

부영주택은 위례신도시 A2-10블록에서 '사랑으로 부영'을 선보인다. 총 138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5~149㎡로 구성됐고, 이중 85㎡의 양도세가 감면된다. 분양가는 85㎡ 기준 5억5400만원대로 결정됐다.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우진건설이 경북 영덕에서 250가구 규모의 '영덕 우진 센트럴하임'을 공급하고 ▲광주 광산 '송정e-다음'(140가구) ▲부산 동래 '허브센티움'(48가구) ▲경남 창원 '에코센트럴빌'(52가구) 등도 올해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올해 분양시장이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수요자들은 무턱대고 청약에 나서기보다 자금계획 등을 철저히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k602@metroseoul.co.kr

트랙스 '올해의 안전한 차' 최고점

국토부, 국내 시판 11차종 평가

국토부 선정 '올해의 안전한 차' 최우수 자동차에 한국GM 트랙스(93.5점-사진), 우수 자동차에 기아 카렌스(90.3점)와 현대 맥스크루즈(88.1점)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올해의 안전한 차' 시상식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대상 자동차는 기아 K3·카렌스, 현대 아반떼쿠페·쏘나타 하이브리드·맥스크루즈, 한국GM 트랙스·캡티바, 토요타 프리우스, BMW 520d, 폭스바겐 티구안, 닛산 큐브 등 총 11차종(국산차 7차종, 수입차 4차종)이다.

4개 분야(충돌·보행자·주행·사고예방 안전성)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안전도 1등급은 한국GM 트랙스·캡티바, 기아 K3·카렌스, 현대 맥스크루즈, 토요타 프리우스, BMW 520d 등 7개 차종에 차지했다. 2등급은 현대 아반떼쿠페·쏘나타하이브리드, 닛산 큐브 등 3개 차종이고, 폭스바겐 티구안은 평가 차종 중 유일하게 3등급을 받았다. /조한진기자 [illegible]

남양주 '화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전용 59~84㎡ 635가구 공급 화도IC 타면 잠실권 20분대

효성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4지구에 '화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공급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7개 동, 전체 635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84㎡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지구 내 초등학교 2곳과 마트, 병원, 학원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를 이용해 강동권 15분대, 잠실권 2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 복선전철역 마석역을 통해서도 서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내 최신시설의 보육공간을 비롯해 피트니스클럽, GX룸, 북카페, 실버하우스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분양가는 3.3㎡당 700만원대로 책정됐다.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60% 전액무이자, 선착순 발코니 확장비 특별조건 등이 적용된다.

경춘선 평내호평역 맞은편에 모델하우스가 마련돼 있다. 2015년 8월 입주 예정.

문의 1588-7046 /박선옥기자

희망서울

서울시복지재단

복지관련 법률, 금융에 관한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복지법률 지원단
swlc welfare seoul kr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sfwc welfare seoul kr

상근변호사 복지법률상담 및 소송서류 작성 지원 | 복지관련 정책 제도 개선
채무조정 지원(개인회생, 파산면책, 행복기금) | 가계재무상담 및 컨설팅

- 이용대상 : 복지관련 법률상담, 금융상담이 필요한 서울 시민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상담신청 : **1644-0120** / 다산콜센터 **120**

검색창에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요즘 군침도는 조건 '청정·유기농·국산…'

식품업계 '안전먹거리 인증' 마케팅 뜨겁다

세이푸드슈머(Safety+food+Consumer)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먹거리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9.2%를 차지한 반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5.8%에 그쳤다.

이런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식음료업계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다양한 먹거리 인증 마케팅을 펼치며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롯데리아는 한우 제품을 제외한 모든 소고기 버거 제품에 '호주청정우'를 사용하고 있다. '호주청정우'는 가축 질병이 없는 청정국가 호주 정부의 엄격한 검역 기준을 통과한 호주산 소고기에 '클린 & 세이프(Clean & Safe)' 마크를 부착한 것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품질의 소고기를 사용했음을 뜻한다. 한우 제품은 농장에서 직접 공급받고 국가공인기관에서 매월 1회 DNA판정 결과를 인증 받은 한우만을 사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매일유업은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젖소 1마리당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목초지와 방목장을 갖추고 유기 농산물 사료 및 생활용수 이상 등급의 물 등 젖소의 생활환경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매일유업은 상하목장 브랜드로 출시한 유기농 우유에 대한 소비자 호응에 따라 발효유, 저지방 우유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했다.

풀무원은 지난 달 시판 중인 두부 전 제품의 포장재를 환경부가 개발한 수성접착제를 사용한 친환경 포장재로 교체했다. 기존 포장재보다 중량을 9% 줄여 원료 사용과 폐기물량을 감소시킨 포장용기는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둬 'GP 마크'를 획득했다. 이 마크는 포장의 소재, 제조방법, 디자인, 포장의 기본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며 한국환경포장진흥원 주관이다.

농심은 총 120여 개 협력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컨설팅은 농심이 자체 양성한 사내 식품안전 전문 컨설턴트가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농심 및 종합 개선 평가표' 항목에 맞춰 식품안전성과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체크하고 개선을 위한 자문해 주고 있다. /장윤희기자 prme@metroseoul.co.kr

롯데리아의 '크린&세이프' 인증마크, 매일유업의 상하목장 유기농우유, 풀무원의 '국산콩 두부 (친환경포장)'.

갈치 다시 '국민생선'

고등어 누르고 매출 1위

대형마트에서 갈치가 고등어를 누르고 3년만에 국민생선으로 돌아왔다.

15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2008년부터 수산물의 연간 누계 매출을 집계한 결과 2010년 이후 3년 만에 갈치가 고등어를 제치고 생선 매출 1위에 올라섰다. 이는 올해 수입산 갈치의 판매가 늘었고,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어획량이 증가해 가격이 싸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제주도의 올해 11월까지 갈치 위판량은 1만6433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4311톤)에 비해 16% 가량 증가했다. 제주수협에서 11월 갈치(1마리/250g 내외)의 평균 위판가격은 3500원으로 작년 4500원보다 30% 가량 하락했다.

이같은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가 몰리면서 11월 롯데마트 판매 국산 생선 중 유일하게 작년보다 240% 가량 매출이 늘었다.

하지만 고등어는 올해 어획량이 20% 가량 줄어든데다 최근 가격이 15% 가량 오르면서 수요가 더욱 감소했다. /정윤 기자

메리어트 미숙아 치료기금 기부 약속 12일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JW메리어트호텔 로비에서 열린 '하트비어와 함께 하는 연말 송년나눔 기금전달식'에 참석한 쉐보대사 소에린, 신인숙 하트하트재단 이사, 크리스 리 코트야드 총지배인, 마이클 언모 르네상스 호텔 이사, 이종호 JW메리어트 호텔 이사(왼쪽부터)가 기금전달식을 진행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르네상스 서울 호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등 4개의 메리어트 계열 호텔들이 '메리어트, 하트하어와 사랑을 전하다'라는 이름으로 미숙아 치료 기금을 모아 하트하트재단에 기부하게 된다. /손진영기자 son@

공짜 여행지? 먹기 나름!

식품·외식 업계 너도나도 '해외여행 경품' 행사

청춘남녀들에게 크리스마스에서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시기는 '로맨틱 홀리데이' 시즌이다.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 좋은 사람과 오붓이 즐기는 로맨틱한 시간을 꿈꾸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이벤트에 도전해보자. 지금 식품·외식업계는 특별한 여행 상품을 경품으로 내건 크리스마스 시즌 이벤트가 한창이다.

'죠스떡볶이'는 겨울 시즌 메뉴 '심슨세트'와 '사은세트'(사진) 출시를 기념해 구매 고객 중 131명에게 서울 소재 특급호텔 2인용 패키지 숙박권과 럭키박스, 모바일 상품권 등의 선물을 증정하는 '죠스 스파이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이 달 말일까지 진행한다. 겨울 시즌 세트 메뉴를 구매한 후 영수증의 응모번호를 홈페이지 내 이벤트 코너에 입력하면 응모할 수 있다. 매장에 부착된 이벤트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도 응모할 수 있다.

'블랙스미스'는 2쌍을 추첨해 4박 5일 하와이 여행권을 증정하는 '겨울맞이 하와이 여행' 이벤트를 열고 있다. 이 달 말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겨울 시즌 메뉴를 구매한 후 영수증의 응모번호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애슐리'는 한식당 키사라, 중식당 싱카이, 한식당 손수헌, 인터내셔널 오리옥스 등 이랜드에서 운영 중인 다이닝 레스토랑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따뜻한 송년 이벤트'를 이 달 말일까지 연다. 추첨을 통해 1명에게 150만원 여행권, 2명에게 50만원 여행권, 3명에게 블루힐리조트 주말숙박권 등을 증정한다.

동서식품은 '맥심화이트골드 크리스마스 스페셜 에디션'을 구입하면 추첨을 통해 2명에게 동유럽 7박9일 여행권 2매를 선물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엔 맥심화이트골드' 이벤트를 25일까지 벌인다.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총 5개국에 이르는 동유럽의 핵심 관광지와 다양한 특식, 호텔 숙박을 포함하는 패키지 여행권이다. 제품 1개에 동봉된 응모권으로 맥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및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사조해표'에서도 이 달 말일까지 안심따개 참치(단품 제외)를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여행권, 25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한다.

'빠르빠르'는 매장 이용객 중 추첨을 통해 3쌍에게 뉴칼레도니아 여행권을 주는 '러브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한다. 주문 후 계산 시 지급되는 응모권의 간단한 설문조사를 작성한 후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정윤 기자

겨울해변의 질척임 아랑곳 '마이웨이'

임의택의 차차차

■ 지프 그랜드 체로키 3.0

오늘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는 당초 픽업트럭을 바탕으로 레저생활을 즐기기 위해 태어난 차였다.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고, 이 시장에서 크라이슬러는 '지프 체로키'로 강자의 이미지를 굳혔다.

세월이 흘러 유럽 메이커들도 앞다퉈 SUV를 만들고 있는 요즘, 크라이슬러는 새로운 신작인 뉴 그랜드 체로키를 최근 출시했다. 1992년 첫 선을 보인 이후 5세대 모델로 진화한 새 모델은 기본적으로 4세대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외

특한 기어 노브가 특징. 기어 단수가 늘어난 만큼 효율적인 변속과 부드러운 주행이 돋보인다. 굳이 흠을 잡자면 R(후진)과 N(중립), D(드라이브) 사이의 구분이 명확지 않아 간혹 기어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랜드 체로키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다양한 지형에 대응하는 셀렉 터레인(Selec-Terrain) 시스템이다. 눈길이나 진흙길, 바위 보래 등 여러 가지 노면에 대응해 설정할 수 있고, 오토 모드에 놓으면 차가 노면 상황을 파악하고 알아서 설정을 바꾼다. 이번 시승에서는 을왕리 해변을 찾았는데, 다른 차였다면 빠져버렸을 모래사장을 마음껏 누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신형에는 앞 차가 빠른 속

자동변속기는 아우디 A8 동급-기어노브는 '호화요트 탄듯'
눈 진흙 모래사장 바위 … '노면 느끼는' 셀렉 터레인 압권

관은 헤드램프와 범퍼, 테일램프의 세부 디테일을 다듬었다. 헤드램프에는 LED 주간주행등을 더해 인상을 바꿨고, 운전자가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조사 각도가 변하는 어댑티브 기능이 더해졌다. 실내는 최고급 내장으로 다듬어 구현됐다. 한층 고급스러워졌다. 특히 내츄라 플러스, 나파 등의 가죽소재와 오픈 포어 우드 트림 등 최고급 소재를 실내에 사용해 격을 높인 점이 돋보인다.

이번 모델체인지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독일 ZF의 8단 자동변속기 장착이다. 국내 판매 모델 중에서 아우디 A8과 크라이슬러 300C에 적용하고 있는 변속기다. 요트의 요트를 조작하는 느낌의 독

도로 가까워질 때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전방 추돌 경고시스템도 추가됐다.

몇 가지 개선할 점은 한글 안내 기능의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으로 전해지는 음성조합이 다른 차에 비해 어색해 듣기가 거북할 때가 있다. 몇 가지 사소한 점을 개선한다면 그랜드 체로키는 동급 최고의 자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신형 그랜드 체로키의 값은 리미티드 3.0 6890만원, 오버랜드 3.6 6990만원, 오버랜드 3.0 7490만원, 서밋 3.0 7790만원이다. BMW X5와 메르세데스 벤츠 M클래스, 아우디 Q7,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이 경쟁 상대다.

/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한 줄 평가: 탄탄한 기본기에 세련미를 더했다. 한글 내비게이션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평점: ★★★★☆(별 다섯 개 만점 기준)

내곡 주민들 '서초 아우디' 앞 시위

단지내 정비공장 건립 반대

서울시 서초구 내곡 보금자리지구 일대에 들어설 아우디 3S센터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환경문제'를 이유로 입주민은 물론 환경단체까지 가세해 자칫 '제2의 사태산' 사태로 불거질 조짐이다.

전시장과 부품판매, 정비센터가 모두 포함된 아우디의 3S센터는 내곡지구 3단지 앞 유치원 초등학교에 근접한 주차장 용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이곳에 아우디의 3S센터가 들어설 경우 BTX(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유해물질이 유출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14일 아우디 서초전시장 앞에서 입주민 200여명이 모여 진행된 집회에서도 '생태공원에 정비공장 SH 사기분양', '아우디 아웃' 등의 구호가 등장했다.

위본모터스쪽은 부지 매입의 경우 서초구를 통해 SH공사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유해물질인 벤젠 등은 100ppm을 기준으로 1ppm도 배출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유해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태균기자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해야

기고
양범직
<한화생명 상무>

얼마 전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태양광 에너지'가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 보인다. 태양광은 일석사조(一石四鳥)의 장점을 지닌 친환경 재생에너지다.

첫째 태양광발전 확대는 전력대란 해소를 위한 적합하고 신속한 대안이다. 태양광발전은 6개월내 설치할 수 있고, 전력 피크 타임에 최대 발전이 가능해 전력대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태양광발전은 수요지 인근 설치가 가능해 송배전망 수요를 감소시키고, 외부전원이 필요없는 분산효과가 있어 최악의 사태에 국가 통신망과 기간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비상전원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태양광발전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환경문제를 해소해 국가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7위를 기록, 환경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CO2 등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국가로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태양광 산업은 제조업의 두배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온다. 신재생 에너지는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효과가 커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가 집중 육성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도 '태양광산업이 2030년까지 630만개(다운스트림) 연관산업 전체로 1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넷째 태양광 산업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동반성장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종합산업 성격을 갖고 있다. 태양광산업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해 각종 제어장치·IT·소재·박막·반도체·기계장치·정보통신·건설·토목 등 연관산업과 융합을 통한 창조적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의 제조분야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이 가능한 대표적인 분야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야말로 태양광 기술 및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기업 개혁 또 시늉만 낼 건가

정론탁설
유병팔
<언론인>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기업 개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정부는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국민들은 대통령과 부총리가 거듭 있을 때마다 공기업 경영혁신을 강조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혁신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 공기업 사장의 연봉을 4분의 1 정도 삭감한다는 점은 눈에 띄나 다른 부분은 기대 이하다. 물론 직원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기관과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하겠다고는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부채를 일정수준으로 줄이지 못할 경우 내년 9월 말 중간평가를 통해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공공기관 부채는 그동안 많은 우리 속에 566조원에 달해 국가채무 446조원보다 오히려 120조원이나 많아졌다. 무디스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는 공기업 부채 문제가 국가채무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 문제의 원인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수선 증가 속도가 무척 빠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4대강과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으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다 책임경영이 실종된 상태다. 그동안 방만경영이 수없이 드러났어도 수술대에 올리지 못했다.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문경영인보다는 낙하산 인사로 CEO를 채우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도 이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선 때마다 선심 공약으로 공기업의 부실을 부추겨 오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공기업 개혁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안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 방만 경영의 원인을 철저히 찾아내고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합리경영의 틀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적인 당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전문 인력을 전진 배치함은 물론 경쟁을 유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민영화 계획도 내놔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공기업 개혁을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포토프리즘

"잠시만요~ 온정 나누고 가실게요"

1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구세군 자원봉사자가 자선냄비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지나가는 시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신 종을 흔들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조금 줄어든 온정 마음을 녹일 온정이 절실한 계절이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장성택 처형 영상' 스미싱

기자수첩
장윤희
<경제산업부 기자>

청첩장·돌잔치 스미싱에 이어 '장성택 처형 영상' 사기 문자까지 등장했다.

이 신종 문자 사기는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된 지난 12일부터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장성택 처형 영상 보기'라는 제목이 달린 메시지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최대 25만원이 소액결제로 청구된다. 장성택 처형 스미싱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고인이 된 인물을 악용한 수법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망자를 희화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구글플레이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스키어 운지'란 게임이 올라왔다.

이 앱은 '귀여운 노알라 캐릭터로 몸에 해로운 계란과 부엉이를 피하는 게임'이라고 설명돼 있다. 노알라는 노무현 대통령과 코알라의 합성어, 부엉이는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부엉이 바위, 계란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을 향해 던지는 습격 도구를 뜻한다. 게임 제목에 쓰인 '운지'는 극우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이용자들이 조롱조로 쓰는 은어다. 이 논란은 노무현 재단이 구글에 항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도를 넘은 IT 콘텐츠 개발이란 어두운 선례를 남겼다.

자신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IT 뒤에 숨어 특정인을 희화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경계해야 된다. 상대가 이 세상에 없는 인물이라면 더욱 그렇다. 스미싱은 개발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 IT에도 인지상정(人之常情)이 필요하지 않는가.

겨울일기

인문학 산책
김만웅
<성공회대 교수>

눈이 덮인 도시는 겨울의 풍경화가 된다. 길은 어느새 경계선이 사라진 들판처럼 자유로워지고, 발걸음은 평소의 속도와 결별한다. 눈길에서 우리는 이제껏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다는 듯이 갈지 걷는다. 아직 빙판이 되기 전의 거리는 그런 자유들이 마치 필적(筆跡)처럼 남겨져 있다.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어디론가 걸어가야 하는 시간은 모두 그런 흔적으로 새겨질 것이다. 어떤 것은 지워지고, 어떤 것은 망각되고, 어떤 것은 녹지 않고 가슴에 스며들어 두고두고 떠오르지 않겠는가.

맹렬한 추위로 사방이 얼어붙는 듯한 어느 겨울날, 철기로 만들어진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문고리에 쩍쩍 달라붙었다. 장갑을 끼고도 손등은 터서 작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모세혈관에서는 피가 나오기도 했다. 피부를 보호할 크림 하나 변변치 못했던 1960년대 초기의 구시 보순이었다. 낡은 스웨터를 입기는 했으나 털모자는 갖지지 못하고 겨우 귀마개 하나를 낀 채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가난과 동풍(冬風)이 만들어낸 이 시절의 흑백사진이기도 하다.

겨울은 그렇게 일심히 습격당하는 계절이었고, 몸 하나를 지켜내는 일이 버거운 시간이기도 했다. 군고구마는 이런 겨울날 십구공탄을 때 따뜻해진 온돌방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었다. 연인들이 뜨거운 김을 호호 불면서 서로 입에 넣어주던 달콤함이었다. 두터운 외투를 뚫을 기세인 날카로운 바람과 비례를 불연하게 하는 빈곤의 우울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린 작은 위로와 포사였다.

그런 시절은 이제 누군가의 추억 속에서나 아련하게 기록돼 있을 일기장의 한 페이지다. 망년회가 송년회로 이름을 바꾸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나 해제되었던 통행금지가 사라진지 오래다. 통금이 풀린 날은 그 다음날 지구가 멸망하기나 할 듯이 모두가 만취했다. 우리에게 그런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도 바빠졌고, 사람들의 만남은 예아릴 길 없이 많아졌건만 도시는 도리어 더욱 외롭다. 눈이 내리자 모두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고요해진 거리는 침묵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고독해진 겨울이 입을 다문 탓이라고 여길 수 없었다. 어쩌면 비로소 평화로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은가? 현신이 몰아붙이는 속도에 지쳐 있고, 삭막해져가는 생활에서 젊겨운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겨울 풍경화가 주는 선물인듯 싶기만 하다.

HNT 하나투어리스트

신랑 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받으세요!

허니문 주말상담회

H Wedding

하나투어가 만든 웨딩컨설팅 브랜드 H웨딩!

웨딩 & 허니문 One-Stop Service, 웨딩 패키지와 허니문을 한번에 준비하세요!

방문해서 웨딩 상담만 받아도 '포트메리온 포크셋트' or '영화예매권' or '이성근 화백 작품 머그컵'을 드립니다.
(H웨딩 상담 받으신 커플당 3가지 선물 중 택 1)

MOVIE TICKET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후원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노인 대상
생활고 탓 방치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수술비용 지원 캠페인

겨울이 되면서 시작된 매서운 찬바람은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중장년층의 무릎을 더욱 아프게 한다. 낮엔 찬바람에 무릎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고 밤엔 잠을 설친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해지고 심하면 다리가 O자형으로 휘거나 부풀어 붓고 물도 자주 찬다. 이러한 퇴행성관절염은 무릎 연골이 점차 닳는 질환이다. 퇴행성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했다면 운동과 연골 재생 등의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말기에 이르렀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은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저소득층 환자들은 수술을 미루고 통증을 참으며 지내고 있다. 수술 받을 능력이 된다면 굳이 참으며 살 필요가 없겠지만 비용이 부담돼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수술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에 엄홍길 휴먼재단이 통증을 참아가며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극심한 무릎 통증 '퇴행성관절염'

퇴행성관절염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갖게 되는 질병 중 하나다. 60세 이상 노인 중 약 80% 정도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무릎 통증을 느끼게 되면 움직임에 불편해지고 여행과 같은 장거리 이동은 물론 집 주변 산책조차 힘들어져 환자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이런 퇴행성관절염은 초·중·말기로 구분되는데 초기나 중기는 진행 정도에 따라 연골을 보존하는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말기로 접어든 상태라면 약물이나 주사요법 등은 효과가 없고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인공관절 수술은 연골이 다 닳아 뼈와 뼈가 서로 맞닿은 상태의 무릎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넣는 수술이다. 수술 후에는 꾸준한 재활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술을 받고 싶지만 부담이 큰 '인공관절 수술비용'

인공관절 수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쉽게 수술을 결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비용이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비용이 쉬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쪽 무릎만 수술할 경우 환자 부담금은 대략 250~300만 원 정도이며 입원비와 기본적인 검사 및 진료 비용도 추가된다. 이런 수술을 양 무릎에 받으면 수술비는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만약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비용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저소득층 환자들은 퇴행성관절염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비싼 수술비로 인해 쉽사리 수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엄홍길 휴먼재단, '저소득층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 전개

> **◆치료 후원 신청 방법**
>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 전화: 02)2272-6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코너를 통해 신청

이에 엄홍길(사진) 대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엄홍길 휴먼재단이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통해 비용 문제로 수술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캠페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 중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후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캠페인 담당자에게 어려운 사연과 증상을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엄홍길 휴먼재단의 엄홍길 상임이사는 "무릎 통증으로 인해 고생하면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보면 안타깝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시흔기자

김안과병원 '눈물질환 강좌'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이 20일 김안과병원 명곡홀에서 '눈물질환'을 주제로 '해피 아이(eye)' 눈 건강 강좌를 무료로 개최한다. 최혜선 김안과병원 성형안과센터 교수가 강의하며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최 교수는 "눈물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면 안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겨울 헬스족 스포츠음료 대신 생강차를

동절기 운동에 도움되는 건강음료를 알아 두세요

겨울은 활동량이 줄어 체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져 운동이 필요한 계절이다. 무리한 운동은 근육 손실을 유발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역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때 L-글루타민을 섭취하는 것은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L-글루타민은 신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성분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 가운데 대상웰라이프 'L-글루타민'은 L-글루타민 100%로 제조돼 기본 체력 유지는 물론 운동을 하면서 섭취하기 적합하다. 다른 L-글루타민 제품으로는 보령제약 '글루타민ZMA프로', 웅진식품 '글루타민' 등이 있다.

운동 중에 체온을 유지하려면 생강·대추·도라지 등이 들어있는 식품을 따뜻하게 섭취하는 것이 추천된다. 동아오츠카의 온 음료 '겨울나기'는 국산 재료 100%의 모과와 생강 1% 오미자·도라지·꿀 등을 혼합해 만들었다. 해태음료 '헬키스트 모과생강'도 모과·생강·벌꿀·진피 등을 함유한 온 음료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좋다. 조복미을 '꿀생강차', 담터 '라임레몬생강차' 등은 액상차로 좀 더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겨울 야외 운동 후에는 강풍과 건조 등의 이유로 피부의 수분밸런스가 깨지기 쉽다. 비타민C가 풍부한 귤·오렌지·모과 등의 섭취는 피부 손상을 줄이는데 좋다. 현대약품이 출시한 비타민C 스파클링 음료 '프링클'은 비타민C를 500㎎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피부의 수분저장고인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빙그레 내츄럴 '자몽먹은콜라겐 온'은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을 함유해 피부 수분 보충에 초점을 맞췄다.

운동 후 갈증 해소와 수분 공급을 위해서는 이온음료나 스포츠음료보다는 코코넛 워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코넛 워터 '비타코코'는 그린코코넛에서 얻은 순수한 코코넛 워터로, 인공감미료 등을 일절 첨가하지 않아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당분 섭취가 월등히 낮다. 이외에도 '듀어 코코넛 워터', '원 코코넛 워터' 등의 코코넛 워터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전경원기자

두근두근 산타 왕창 쏜다

두타 '윈터 페스티벌' 개최 17~29일 할인·경품 풍성

패션전문점 두타가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 17일부터 29일까지 두타 윈터 하트 투 하트 페스티벌(Doota Winter Heart to Heart Festival)을 개최한다.

이 기간 두타 전관에서 의류와 잡화, 액세서리 등 겨울 상품을 20~50% 할인 판매한다. 그레인지 야드(Grange Yard), 세뇨리타(Se norita), 코리 코리(Kori Kori) 등 디자이너 브랜드도 최대 8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구매 고객을 위한 사은품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스마트폰 터치 한식 장갑'과 '무릎담요' 중 하나를,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두타 2014 일러스트 캘린더'를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매장 별로 일정 금액 이상 구입시 양말, 레깅스, 장갑 등 다양한 사은품을 선물로 준다.

노스페이스·콜럼비아·뉴발란스·나이키 등 아웃도어&스포츠 매장에서는 20만원 이상 상품 구입시 구매 금액에 따라 두타 상품권을 최대 3만원까지 증정한다.

슈가포인트·리복·망키즈·STL 등 보드복도 30~50% 세일에 들어가며 구매 고객에게 넥워머·비니·양말 등 사은품을 나눠준다.

●페이스북 이벤트도 진행

두타 페이스북(@doota fb)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두타 광장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두타 페이스북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웰리힐리 숙박권과 리프트권, 핫도그&커피 세트를 증정한다.

또 현재 JTBC에서 방송중인 '탑 디자이너' 본방 시청 인증 사진을 탑 디자이너 페이스북(@topdesigner2013)에 올리면 디자이너 상품과 핫초코를 선물한다.

이밖에 행사 기간 중 주말 4일간 6층 행사장에서는 고객이 직접 그린 그림을 뱃지로 만들어 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문의 www.doota.com

/서지영기자

'미코 패키지'로 아름다운 웨딩

한국웨딩협동조합 출시 "정찰제 40%가량 저렴"

한국웨딩협동조합이 합리적인 가격의 미스코리아 패키지(미코 패키지)를 출시했다.

미코 패키지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실내와할영(원판·스냅 사진 포함), 결혼식 당일 사진, 헤어 메이크업 등으로 구성됐다. 2013년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추천하는 최고급 웨딩패키지로 쓰보제니 진 선 미 총 4종이며 가격은 200만원대부터 정찰제로 판매한다.

한국웨딩협동조합은 "예비 신랑 신부들이 선호하는 업체만 선별해 제휴를 맺고 시중가보다 40% 가량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더웨드마인느·유제 어반 그리다 스튜디오, 최재훈·비바탐탐 NY, 브라이덜밴리파드레스, 에비뉴준오 이경민포레 헤어 메이크업 등이다.

한국웨딩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미코 패키지 구매 시 업무제휴를 맺은 전국 웨딩홀의 외로연비를 100만원 할인해준다.

문의 www.kwcoop.org 02)3448-3202~3

/박재환기자

X마스보다 설렌 '이브의 뷔페'

쉐라톤인천호텔 특선 디너 24일 저녁 행운권 추첨도

쉐라톤 인천 호텔이 오는 24일 그랜드볼룸에서 '크리스마스이브 특선 디너 뷔페'를 선보인다.

뷔페는 크리스마스이브 단 하루를 위한 특별 만찬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을 맞이해 마련됐으며 따뜻하고 감성 깊은 재즈 연주와 함께 크리스마스 특선 요리가 뷔페식으로 준비된다. 또 와인과 맥주가 무제한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뷔페는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운영되며 당일 현장에서는 다양하고 풍성한 행운권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어른 8만5000원, 어린이 3만5000원이다. 문의 032)835-1702

/윤지영기자

엄마아빠처럼 입는 '어덜키즈' 바람

패션 소품·레저 아이템 등 성인용 꼭 닮은 제품 인기

어른들의 패션 트렌드를 흉내내는 '어덜키즈'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 아이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어른들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에서 벗어나 어른 제품을 그대로 축소한 생활용품, 성인복과 똑같은 디자인의 유아복 등 아이들의 스타일을 고려한 제품들이 주를 이룬다.

각양각색의 텀블러를 패션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유아용 텀블러도 덩달아 인기다. 시중에는 화려한 디자인과 색상은 물론 음료를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있는 기능이 담겨진 제품 등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토미티피 익스플로라 액티브 보온보냉 스트로컵'은 곡선형의 본체로 손이 작은 아이도 손쉽게 잡을 수 있고, 원터치 방식의 잠금 장치와 역류 방지 뚜껑이 적용돼 거꾸로 세우거나 던져도 내용물이 새지 않는다.

겨울철 아이들과 자주 찾는 스키장에서는 아이들도 '꽃보더'를 꿈꾼다. 아이 스키복은 화사한 색상을 기본으로 안전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선택해야 한다. 세르반의 '스키 올인원'은 성인 스키복 못지 않은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인다. 3M 신슐레이트 소재를 써 가볍고 따뜻하며 완전 방수 기능까지 갖췄다.

/서지영기자

서울로얄호텔 '크리스마스 만찬' 손짓

카페&다이닝 '베르자뎅' 24~25일 디너 스페셜 선봬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서울로얄호텔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카페&다이닝 '베르자뎅'에서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디너 스페셜 메뉴'를 선보인다.

이탈리안 스타일의 안심스테이크로 구성된 스페셜A와 세계3대 진미와 최상의 한우 안심스테이크로 구성된 스페셜S 두 가지 메뉴가 준비되며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스페셜A가 7만7000원, 스페셜S가 9만9000원이다. 또 스페셜S 메뉴는 주문하면 칵테일 1잔이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02)2129-5805~7

/윤재원기자

뉴스 & 뉴스

남영비비안 CCM 우수인증

● 남영비비안은 최근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영비비안은 지난해 CCM팀을 신설, 고객의 소리 관리를 위해 고객관계관리(CRM) 전산시스템과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업 현장의 직원들은 CCM 리더로 임명해 고객 불만을 빠르게 해소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소비자 중심 경영이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다.

NS홈쇼핑 '건강한 밥상' 첫방

● NS홈쇼핑은 16일 오전 6시 사찰식 박연경 연암(?)을 시작으로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하는 건강정보 전문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을 첫 방송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45분 동안 방송하며 상품설명과 조리를 동시에 진행한다. '명품보감 건강이 최고' 코너에서는 제품 유래부터 영양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상품의 이해를 돕는다. 울금청국장(17일), 세척수삼(18일), 곤드레나물(19일), 검은콩 낫또(20일) 등 겨울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식품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찌질한 남편 연기… 촬영내내 답답”

영화 '집으로 가는 길' 고수

조각미남 고수(36)가 생활밀착형 연기로 관객의 공감을 끌어낸다. 연예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잘생긴 외모를 자랑하는 그는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 평범한 소시민 연기를 실감나게 선보이며 외면보다 돋보이는 내면을 드러냈다.

영화는 2004년 벌어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2년 동안 타국에서 감옥살이를 하다 가까스로 한국에 돌아온 가정주부의 이야기다.

영화는 전도연이 연기한 송정연의 시점으로 흘러가지만 사건의 발단이 되는 남편 김종배(고수)의 행동이 얼마나 개연성이 있고, 이후 아내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느냐에 따라 관객의 몰입도는 달라진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로 접근했어요. 친구나 사회에서 만난 동생들에게는 살갑게 대하지만 아내에게는 가깝다는 이유로 [illegible] 소홀한 남편이 있잖아요. 빚더미에 앉은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잘못 된 선택을 하는 아내를 그곳으로 내몬 건 결국 남편이라는 걸 잘 보여줘야 했죠.”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정해진 결말은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무능한 김종배 좌절감 표현하는데 집중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 캐릭터에 끌려
'고비드' 별명… 패션 관심은 별로 없어요

밖에 없다. 결국 가족이 겪는 시련과 극복, 회복의 과정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영화 성공의 열쇠였다.

“아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편이 지식이나 인맥, 능력을 갖췄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그러지 못해 힘들어하는 캐릭터죠. 실제 연기하면서도 답답함은 끝이 없었어요. 한 여자의 남자이자 가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꼈을 때 받는 좌절감을 표현하는데 집중했죠.”

'집으로 가는 길'에서 무능한 김종배를 연기하며 쌓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택한 작품이 드라마 '황금의 제국'이었다.

“'황금의 제국'의 장태주는 야망을 마음껏 펼치고 모든 행동을 자신이 결정하죠. 영화 촬영을 끝낸 후에도 해결되지 않던 답답함을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며 저도 모르게 씻어냈나 봐요.”

남다른 비주얼을 한껏 살리는 캐릭터들도 많지만 그의 선택은 주로 그 반대로 향해있다.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비드 조각상처럼 잘생겼다는 뜻으로 '고비드'라는 별명이 붙었고, 뛰는 외모가 일상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방해가 될 법하지만 그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다”며 손사래를 친다.

“[illegible] 찾아볼 정도로 패션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좋아 그런 인물에 더 끌리나 봐요.”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음악영재 뜨니 'K팝스타3' 뜨네

이재영에 반하고 브로디에 놀라고… 시청률 '쑥쑥'

SBS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 - K팝 스타 3'가 매회 놀라운 실력의 영재 참가자들을 발굴해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3회에 걸쳐 방송된 본선 1라운드에는 천재 소녀 이재영, 기타 소년 샘김, 여고생 3인방 짜리몽땅, 총균 자매 이재연·이채령, 소울 소녀 배민아 등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실력을 지닌 참가자들이 속출했다. 시즌 2의 우승자 악동뮤지션처럼 개성으로 무장한 농촌아이들과 같은 팀도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15일부터 시작된 2라운드에서도 3회에서 가까스로 합격한 브로디가 1라운드 실력에 비해 크게 향상된 실력을 선보이 심사위원과 참가자 모두를 놀라게 했다. 유희열은 "심사를 하면서 가장 깜짝 놀란 순간"이라고 말했고, 양현석은 "'K팝 스타'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K팝 스타 3' 참가자인 브로디·이재영·샘김

이 같은 영재들의 활약에 힘입어 프로그램은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위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역대 최저 시청률로 종영한 엠넷 '슈퍼스타K 5'와 상반된 성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K-팝 스타를 뽑는다는 취지에 맞춰 어린 참가자들이 주를 이루는데, 영재들이 몰리면서 타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런데 어린 참가자들이 많다는 점은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는 장점과 기복이 심해 불안하다는 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기도 하다. 이날 방송에서도 1라운드에서 자작곡으로 세 심사위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정세운이 혹평 세례를 받았다.

제작진은 "강력한 우승 후보의 약세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참가자 등 예측 불가능한 반전극이 연달아 등장해 긴장감 속에 흥미진진한 무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박지원기자 bak0127@metroseoul.co.kr

비욘세 새 앨범 깜짝 공개

팝스타 비욘세(사진)가 2년 6개월 만에 정규앨범을 발표했다.

그는 14일 아이튠즈에 다섯 번째 정규 앨범 '비욘세'를 발표했다. 2010년 6월 4집 '4' 이후 출산과 육아 등으로 공백기를 보낸 비욘세는 데뷔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셀프 타이틀 앨범으로 어느 때보다 작업에 공을 들였다.

특히 이번 앨범에 총 14곡이 수록된 가운데 비욘세는 17편의 비디오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음악을 본다. 그저 듣는 것을 넘어선다. 만약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이나 감정들, 어린 시절의 추억, 삶에 대한 생각, 나의 꿈, 환상 등과 연관된 일련의 이미지들을 본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음악과 연결돼 있다"고 음악과 비디오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새 앨범 전곡과 비디오를 공개하는 전략을 쓴 비욘세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음악을 발표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것에 질렸다. 이제는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앨범에는 힙합 스타이자 비욘세의 남편인 제이지를 비롯해 팀버랜드, 저스틴 팀버레이크, 퍼렐 윌리엄스, 드레이크, 미구엘, 시아 등이 참여했다. 이번 앨범은 이달 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

'도둑들' 커플 안방팬심 훔칠까

김수현·전지현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 호흡

18일 SBS 새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첫 방송을 앞두고 주연배우 김수현(사진 왼쪽)과 전지현(오른쪽)이 스크린에 이어 안방극장에서도 '대박'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영화 '도둑들'에서 오묘한 도둑 커플로 나서 1000만 관객 동원의 흥행을 이끈 두 사람은 '별그대'에서도 여세 호흡을 펼쳐낼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1609년 광해 1년 소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비행 물체 출몰에 관한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이 드라마에서 각각 400년 전 지구에 떨어진 외계남 도민준과 싸가지 없는 한류여신 톱스타 천송이로 분해 유쾌한 로맨스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전지현이 드라마 '혜미두게더' 이후 16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고, 김수현 역시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해를 품은 달' 이후 첫 출연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더욱 크다.

게다가 히트작인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박지은 작가와 '뿌리깊은 나무'의 장태유 PD도 잘 어울려 흥행에 힘을 보탠다. 또 전작 상속자들이 이 20%가 넘는 높은 시청률로 종영함에 따라 같은 날 첫 선을 보일 이연희·이선균 주연의 MBC '미스코리아'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쳤다.

한편 첫 방송을 앞두고 15일 제작진은 시크한 표정의 김수현과 당당한 표정의 전지현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수현의 넥타이를 전지현이 손끝으로 살짝 당기는 모습으로 러브라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박지원기자

씨스타 '있다 없으니까' K-팝 차트 1위

그룹 씨스타의 유닛 프로젝트 씨스타19(사진)가 '있다 없으니까'로 미국 빌보드 연말결산 K-팝 차트 정상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

'있다 없으니까'는 엠넷닷컴 연말차트 스트리밍 순위와 다운로드 순위에서도 정상을 차지하며 '올해 가장 팔아 팔린 음원'으로 선정됐다.

인기 프로듀서 용감한형제와 손잡은 '있다 없으니까'는 효린의 허스키하면서도 감성적인 보컬과 맛깔스러운 보라의 랩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또 '작시 군무'를 비롯한 차별화된 무대 퍼포먼스와 콘셉트를 앞세운 씨스타19는 대표적인 유닛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

star bag

자두 결혼식서 부케 받아

배우 윤은혜가 가수 자두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결혼식 다음날인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게 웬나구요. 맞아요. 부케 받았어요. 근일이네. 목사님 같은 분 어디 안 계시나요?"라는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을 올렸다. 앞서 자두는 14일 은평구 은명감리교회에서 아섯 살 연상 증교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윤은혜는 이날 축가를 부르고 부케를 받았다.

성소수자에 응원 메시지

샤이니 종현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 지지에 나서 화제다.

그는 15일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강은하씨가 성소수자의 불편을 호소한 내용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로 교체했다. 이와 함께 강씨에게 "응원한다. 연예인으로서 다른 의미로 대중을 대하는 소수자로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많은 상실감을 느낀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출연

윤현진 SBS 아나운서가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깜짝 출연한다.

15일 SBS에 따르면 윤 아나운서는 17일 방송될 6회에 쿠킹 클래스 강사 안나(최화정)와 함께 요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로 특별 출연한다. 극중 나진철 역을 맡고 있는 윤종빈의 친누나이기도 한 그는 "그동안 누나로서 가끔 잔소리를 했는데 직접 출연해보니까 동생의 수고를 알겠더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히든싱어2' 최종 우승

가수 박진영이 JTBC '히든싱어 2'에서 우승했다.

14일 방송된 박진영 편에 열 번째 원조 가수로 출연한 그는 노을의 강균성, 현재 같은 소속사에서 레슨을 받고 있는 예비 가수, 선문기자 등 다양한 모창능력자들과 대결을 펼친 결과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시청률은 자체 최고인 7.5%(닐슨 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광고제외 기준)를 기록했다.

하하&스컬·리쌍과 '…더 놀자'

23~25일 콘서트 열어

대세 예능인 하하&스컬·리쌍(사진)이 '2013 크리스마스 더 놀자'를 통해 뮤지션으로 뭉친다.

23~25일까지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열리는 '2013 크리스마스 더 놀자'는 이들의 조합만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음악과 예능을 모두 섭렵한 이들은 24~25일 콘서트를 계획했지만 일찌감치 매진되면서 23일 추가공연을 결정했다.

이날 공연에서 리쌍은 '러쉬' '인생은 아름다워' '리쌍 부르스' '발레리노' 등을 들려주며 사랑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크리스마스를 물들인다. 또 리쌍의 영원한 연인이자 실력파 보컬리스트인 정인이 함께한다. 하하와 스컬은 국내 대중공연으로 좀처럼 보기 힘든 레게 음악을 겨울 분위기에 맞춰 들려준다.

'2013 크리스마스 더 놀자' 출연진들은 "관객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루 일찍부터 더 놀기 위해 23일 추가공연을 오픈했다"며 "최상의 연출과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보한기자 yhw@

젝키 메들리 5000명 떼창

22년 역사 DSP 페스티벌

신·구 아이돌 총집합 … 카라·레인보우 12인조 핑클 변신

젝스키스·SS501·클릭비·카라·레인보우·에이젝스 등 국내 아이돌 역사를 이어온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DSP미디어 소속과 출신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합동공연 'DSP 페스티벌'이 14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그동안 젝과 코코를 비롯해 정상급 아이돌 그룹을 배출해온 DSP는 회사 설립 22년 만에 처음으로 패밀리 콘서트를 마련했다.

현재 소속 가수는 물론 계약 만료 후 새 소속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까지 모여 끈끈한 의리를 보였다. 젝스키스의 은지원·김재덕·장수원과 군 복무 중인 유호석을 제외한 오종혁·하현곤·김상혁·노민혁·김태형·유연석 등 클릭비, SS501 박정민 등이 무대에 올랐다.

젝스키스의 무대에서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오종혁과 에이젝스가 젝스키스 메들리를 선보였고 은지원·장수원·김재덕과 에이젝스가 '폼생폼사' '커플'을 부르자 5000여 명의 관객은 일제히 합창으로 화답했다.

레인보우와 에이젝스는 젝과 코코의 노래를 선사했고, 카라와 레인보우는 12인조 핑클로 변신해 선배들의 무대를 재현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tvN 월화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3

너를 만나,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매주 **월,화** 밤 9시 40분 tvN 방송 / 2014년 1월 13일 첫방송

김소연 | 성준 | 남궁민 | 왕지원

tvN | JSpictures

36점 문태영·라틀리프 '투맨쇼'

모비스, KT 꺾고 공동2위…인삼공사 8연패 탈출
오리온스·전자랜드 양팀 전반 42득점 최저 기록

"세영도 날 못 막아" 15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프로농구 울산모비스와 부산KT의 경기에서 모비스 문태영이 여러 명의 수비수를 제치며 슛을 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선두 추격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모비스는 15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프로농구 부산 KT와의 경기에서 63-50으로 이기며 2연승을 달렸다. 17승 8패가 된 모비스는 창원 LG와 공동 2위가 됐다. 선두 서울 SK와 승차는 1경기다.

이날 모비스는 문태영이 18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고 리카르도 라틀리프는 18점 11리바운드를 보태 '더블더블'을 작성하며 승리를 주도했다. 부상에서 복귀한 가드 양동근은 38분 6초를 뛰며 8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몸상태가 100%가 됐다는 걸 보여줬다.

2연패 뒤 2연승을 거둔 모비스는 17승8패를 기록했다. 순위표에선 한 계단 올라 창원 LG와 공동 2위에 자리 잡았다.

반면 KT는 모비스에 6연패를 당해 징크스를 털지지 못했다. KT는 1패를 추가해 14승11패가 됐으나 그대로 4위를 지켰다.

안양 KGC인삼공사는 원주 동부를 72-57로 꺾고 8연패에서 탈출했다. 전날 서울 삼성에 20점 차로 대패해 창단 후 최다 연패 기록을 새로 쓴 인삼공사는 모처럼 승리를 챙겨 가라앉은 분위기를 다소 끌어올렸다. 인삼공사는 6승19패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6위 인천 전자랜드(11승13패)와의 격차를 5.5경기 차로 좁혔다.

인천 전자랜드와 고양 오리온스는 이날 공격에서 애를 먹으며 전반 양팀 합산, 3쿼터까지 양팀 합산 최저 득점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2쿼터까지 오리온스가 16득점, 전자랜드가 26점을 넣는 등 두 팀은 전반에 42득점에 그쳤다. 인천 전자랜드는 고양 오리온스를 58-56으로 꺾고 단독 6위를 유지했다.

/장병호기자 ysw@metroseoul.co.kr

프로농구 전적 15일

팀	1Q	2Q	3Q	4Q	합계
동부	11	16	14	16	57
인삼공사	23	18	21	10	72
모비스	13	13	24	13	63
KT	11	12	11	16	50
전자랜드	13	13	14	18	58
오리온스	3	18	14	21	56
우리은행	18	15	13	16	62
신한은행	18	10	15	17	60

김영권의 광저우 클럽월드컵 4강

국가대표 중앙 수비수 김영권(23)이 뛰고 있는 중국 프로축구 광저우 에버그란데가 알 아흘리를 2-0으로 꺾고 2013 FIFA 클럽월드컵 4강에 진출했다. 15일 모로코 아가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 아흘리와의 경기에서 국가대표 중앙 수비수 김영권이 에메드 게디(?)를 상대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네덜란드 출신 코치 홍명보호 영입 추진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하는 홍명보호에 네덜란드 출신 지도자가 합류할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5일 홍명보 감독과 올해 러시아 안지에서 함께 생활했던 톤 두 샤틀리니에(55) 전 FC위트레흐트(네덜란드) 감독을 국가대표팀에 영입하기로 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을 대비해 해외 출신 지도자 보강을 원했다. 여러 지도자를 물색한 가운데 러시아 안지에서 인연을 맺었던 두 샤틀리니에 감독을 대표팀에 데려오는 것으로 전했다.

홍명보 감독이 안지에 합류했을 때 두 샤틀리니에 감독은 거스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로 재직 중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때 홍명보 감독이 두 샤틀리니에 감독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장성훈기자

레오 48점…삼성 10승 선착

현대캐피탈 LIG손보에 짜릿한 역전승

삼성화재가 15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3~2014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대한항공을 세트 스코어 3-1(25-21 21-25 25-22 27-25)로 따돌리고 가장 먼저 10승 고지를 밟았다.

4연승을 달린 삼성화재는 10승 2패, 승점 29를 기록했다. 반면 4연패를 당한 4위 대한항공은 5승 6패로 승률 5할 선을 지키지 못했다.

10일 러시앤캐시와의 경기에서 박철우가 왼쪽 새끼손가락 부상을 당해 오른쪽 공격수를 잃은 삼성화재는 48점을 쏟아부은 쿠바 특급 레오의 원맨쇼로 공백을 완벽히 채웠다. 레오는 2세트만 9점에 그쳤을 뿐 나머지 3세트에서 모두 두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블로킹 1개가 모자라 트리플크라운(서브·블로킹·백어택 각 3개 이상)은 아쉽게 놓쳤다.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현대캐피탈이 홈팀 LIG손해보험에 3-2(22-25 23-25 25-19 25-22 15-1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유순호기자

프로배구 전적 15일

팀	세트	세트	팀
대한항공	1	3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2	3	현대캐피탈
흥국생명	1	3	인삼공사
도로공사	0	3	기업은행

후안 우리베 다저스 2년 더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26)이 후안 우리베(34·사진)와 2년 더 한 팀에서 우정을 이어가게 됐다.

다저스는 15일 우리베와 2년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2011년 다저스와 3년간 2100만 달러에 계약한 우리베는 2년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으나 올해 타율 0.278, 홈런 12개, 50타점을 올려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힘을 보탰다. 베테랑 3루수로 탄탄한 수비 실력을 자랑했고,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으로 중남미 선수들이 많은 다저스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유순호기자

2013 KLPGA 3관왕의 주인공 장하나(21·KT)가 2014 시즌 두 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KLPGA 제공

장하나 뒷심 강했다

KLPGA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역전승 '시즌 첫승'

장하나(21·KT)가 2014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 번째 대회에서 우승하며 2013시즌 3관왕의 위상을 입증했다.

장하나는 15일 중국 뮈사우 라이언레이크 골프장(파72·6277야드)에서 열린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최종일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합계 3언더파 213타를 기록하며 공동 2위 김하늘(25), 김해윤(24·이상 KT), 이정은(25·교촌F&B)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2013시즌 대상과 상금·다승 1위를 차지한 장하나는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시즌 첫 승을 챙겼다. 공동 3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장하나는 전날까지 선두를 달리던 최혜정(29·볼빅)이 전반에만 7타를 잃고 미끄러지는 사이 선두로 치고 올라갔다.

김자영(22·LG)이 1언더파 215타로 공동 5위에 올랐고, 김세영(20·미래에셋) 등이 공동 7위(이븐파 216타)를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구자철 2개월만에 복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국가대표 구자철(24·볼프스부르크·사진)이 복귀 시동을 걸었다.

구자철은 15일 볼프스부르크의 폴크스바겐 아레나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와의 2013~2014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16라운드 홈경기에서 3-1로 앞서가던 후반 36분 막시밀리안 아르놀트 대신 교체 투입돼 10여 분을 뛰었다. 10월 말리와의 축구 대표팀 평가전에서 발목을 다친 뒤 2개월 만의 경기 출장이다.

구자철이 분데스리가 경기에 출전한 것은 10월 6일 아인트라흐트 브라운슈바이크와의 8라운드 이후 70일 만이다. 오랜만에 그라운드에 나선 구자철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경기 종료 때까지 공격포인트를 따내지 못했지만 실전 감각을 익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

볼프스부르크는 슈투트가르트를 3-1로 꺾고 최근 2연승에 8경기 연속 무패(6승2무)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5위 자리를 지켰다. /장성훈기자